

롤즈의 자기-패배

:롤즈의 정의이론에 대한 형식이론적 분석

R&R at *Erkenntnis* (A&HCI)

정훈, Ph.D., Ph.D.

소개



정훈

학력

- 서울대학교 철학과 학사 (최우등, 인문대 차석 졸업)
- 미국 코넬대학교 철학과 석사 및 박사 (정치철학/정치사상)
-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정치학과 석사 및 박사 (형식정치이론)

경력

- 미국 로체스터 공대 철학과 초빙 조교수 역임
- 미국 애리조나대학교 철학-정치학-경제학 펠로우 역임
- 현 육군사관학교 국어철학과 조교수
- 2018년 9월부터 일본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부 부교수

연락처

- 휴대폰: 010-9049-2354
- 이메일: hunchung1980@gmail.com
- 홈페이지: <http://hunchung.com>
- Facebook: <http://facebook.com/hunchung1980>

소개



정훈

국제 SCI/SSCI/AHCI급 논문실적 (KCI등재 논문 제외)

- "Directional Equilibria"(Forthcoming in *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*)
- "Diversity and Rights: a Social Choice Theoretic Analysis of the Possibility of Public Reason" (Forthcoming in *Synthese*)
- "The Impossibility of Liberal Rights in a Diverse World" (Forthcoming in *Economics and Philosophy*)
- "Prospect Utilitarianism: A Better Alternative to Sufficiencyarianism" (*Philosophical Studies* 174 (8): 1911-1933)
- "The Instability of John Rawls' Stability for the Right Reasons" (*Episteme*)
- "A Game-Theoretic Solution to the Inconsistency Between Thrasymachus and Glaucon in Plato's Republic" (*Ethical Perspectives* 23 (2): 383-410)
- "Psychological Egoism and Hobbes" (*Filozofia* 71 (3): 197-208)
- "Is Harry Frankfurt's 'Doctrine of Sufficiency' Sufficient?" (*Organon F* 23(1), 50-71)
- "Hobbes's State of Nature: A Modern Bayesian Game-Theoretic Analysis" (*Journal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* 1 (3): 485-508)
- "Understanding Rationality in Hobbes and Hume" (*Filozofia* 69(8): 687-696)

1.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과연 공리주의에 대한 승리인가?

1971년 출간된 <정의론(A Theory of Justice)>에서 존 롤즈는 공리주의보다 우월한 분배정의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였다.

그 결과로 탄생하게 된 정의이론이 바로 “**공정으로서의 정의 (Justice as Fairness)**”이며,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다음의 두 개의 정의의 원칙들로 구성되어 있다.

1. **평등한 최대 자유의 원칙 (Principle of Maximum Liberty)**

2-(a). **기회균등의 원칙 (Principle of Fair Equal Opportunity)**

2-(b). **차등원칙(Difference Principle)**

1.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과연 공리주의에 대한 승리인가?

롤즈의 기본적인 논증

→ '무지의 베일'을 쓴 '원초적 입장'의 합의 당사자들은 공리주의가 아닌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선택할 것이다.

비슷한 시기에, 경제학자 존 하사니는 한 사회의 선호가 개인들의 효용의 총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였다.
(Harsanyi 1955; 1977).

→ 하사니는 자신이 증명한 수학적 정리들이 공리주의를 정당화해준다고 생각하였다.

1.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과연 공리주의에 대한 승리인가?

- 롤즈 vs. 하사니 (혹은 공정으로서의 정의 vs. 공리주의)는 현대 정치 철학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대표적인 논쟁들 중 하나다.
- 이 논쟁은 현 시점에서 각 진영이 상대 진영이 전제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정을 단순히 부정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이다.
- 본 논문의 접근법: 롤즈의 논증의 '건전성(soundness)'보다는 '타당성(validity)'에 주목하려고 함.
- 결론적으로, 본 논문에서 나는 롤즈의 논증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.

선행연구

- Rawls (1971/1999; 1993/2005; 2001)
- Harsanyi's Aggregation Theorem (1955);
Harsanyi's Impartial Observer Theorem (1977)
- Harsanyi's theorems do not justify utilitarianism: Sen (1976);
Weymark (1991); Roemer (1996; 2008)
- Harsanyi's theorems do justify utilitarianism: Broome (1987);
Risse (2008)
- Moehler(2015): there is no winner in the Rawls-vs-Harsanyi debate.
- Binmore (1994; 1998; 2005) tries to justify Rawls from evolutionary
game theory.
- Economists' Maximin/Leximin Principle: Moulin (2003); D'Aspremont
(2010)

2. 공리주의에 대한 롤즈의 비판

왜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은 공리주의를 선택하지 않는가?

- 이행의 부담(Strains of Commitment), 인간의 개별성(Distinction between Persons)
- 공지성의 조건(The Publicity Condition), 안정성(Stability), 자아존중감(Self-Respect)

롤즈가 생각했던, 공리주의가 가진 문제의 핵심:

- 공리주의는 사회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명목으로 소수 개인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희생할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.
- 이에 반해서,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각 개인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원리적으로 보장해준다.
- 이러한 이유로,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은 공리주의를 선택하지 않고,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선택할 것이다.

3. 차등원칙, 일차재화, 그리고 지수문제

차등원칙이 필요한 이유는?

→ 롤즈의 답변: 사회의 최소수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이 가진 가치(worth)를 최대한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해

“정의의 두 원칙의 결합을 통해서, 사회의 기본구조는 사회적 최소수혜자들이 누리는 평등한 자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.”

(Rawls 1971/1999: 179)

3. 차등원칙, 일차재화, 그리고 지수문제

롤즈는 자신의 차등원칙을 이룬바 “사회적 일차재화(primary social goods)”의 분배에 적용을 시켰다.

“사회적 일차재화(primary social goods)”란 무엇인가?

- 그것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각자의 인생계획과 무관하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다목적적 수단적 재화들이다.
- 사회적 일차재화의 종류: 권리, 자유, 기회, 소득과 부
- 롤즈가 사회적 일차재화란 개념을 도입하게 된 주요 목적은 사람들의 처지에 대한 상호비교를 보다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였다.

3. 차등원칙, 일차재화, 그리고 지수문제

“차등원칙은 단순화된 방식으로 개인들 간의 처지를 상호비교한다. 각 개인들의 처지에 대한 상호비교는 각자에게 분배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일차재화의 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. 단적으로 말해서, 나는 한 개인의 이익을 그에게 분배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일차재화의 지수(index)와 동일시할 것이다. 즉, 한 사람의 처지가 다른 사람의 처지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은 전자에게 분배된 사회적 일차재화의 지수가 후자에게 분배된 사회적 일차재화의 지수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.”
(Rawls 1971/1999: 79)

- 이처럼, 사회적 일차재화에 대한 롤즈의 의존은 이른바 “지수매기기의 문제(indexing problem)”을 야기한다.
- 롤즈는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, 한 개인의 소득 및 재산을 그 개인에게 분배된 사회적 일차재화의 지수의 어림 값으로 간주한다.
- 나 역시도 이러한 롤즈의 관습을 그대로 따르겠다.

4. 공리주의와 차등원칙에 대한 형식화 작업

-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집합: $N = \{1, \dots, n\}$
- 실현가능한 모든 재화(부)의 분배상태의 집합: $X \subseteq \mathbb{R}^n$
- 다시 말해서, 실현가능한 분배상태의 집합의 일반적인 원소 $\mathbf{x} \in X$ 는 $\mathbf{x} = (x_1, x_2, \dots, x_n)$ 와 같이 총 n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벡터이다. 이 때, i 번째 항목 $x_i \in \mathbb{R}$ 는 개인 i 에게 분배되는 재화(돈)의 양을 나타낸다.
- 이 때, $u_i: X \rightarrow \mathbb{R}$ 를 개인 i 의 효용함수라고 하자. 각각의 개인들은 자신들에게 분배된 재화를 자신의 효용함수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하는 후생(welfare)으로 변환시킨다.
- 따라서, 하나의 분배상태 $\mathbf{x} = (x_1, x_2, \dots, x_n) \in \mathbb{R}^n$ 가 있을 때, $u_i(\mathbf{x}) = u_i(x_1, \dots, x_n)$ 는 그 분방상태에서 개인 i 가 경험하게 되는 후생을 나타낸다.
- 롤즈를 따라서, 각 개인들은 "상호무관심(mutually disinterested)"하다고 가정할 것이다. (Rawls 1971/1999: 12) 따라서, $u_i(x_1, \dots, x_n)$ 는 단순하게 $u_i(x_i)$ 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.

4. 공리주의와 차등원칙에 대한 형식화 작업

- 이 때, 공리주의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:

$$\max_{x \in X} \sum_{i=1}^n u_i(x_i).$$

- 롤즈의 차등원칙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:

$$\max_{x \in X} \min\{x_1, \dots, x_n\}.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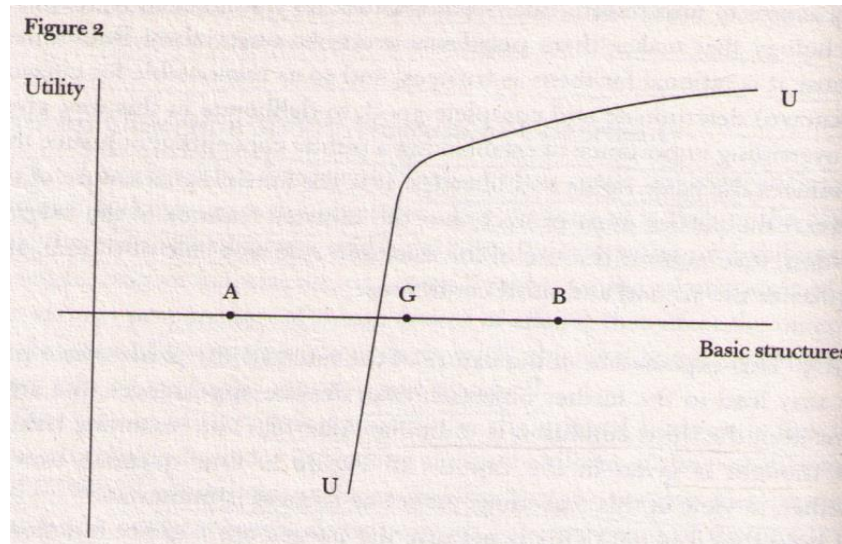
→ 주의: 공리주의와 롤즈의 차등원칙은 어떤 분배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가 다르다!

5. 개인의 효용함수에 대한 롤즈의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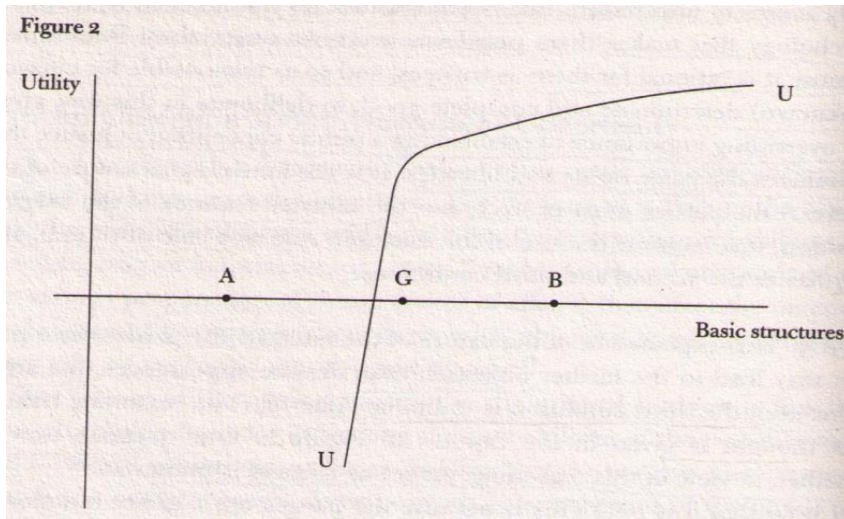
- “정상범위에 대한 가정(Normality Assumption)”: 자신의 정의이론을 제시할 때, 롤즈는 “모든 개인들의 신체적, 정신적 능력이 정상범위에 속한다고 가정”을 함으로써,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부터 비롯되는 특수한 의료적 필요의 문제를 논외로 제외시켰다. (Rawls 1971/1999: 83-4)

→ 이는 센(Sen)이 제시한 “불구자(cripple)”처럼 자신에게 분배된 재화를 자신의 후생으로 제대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개인들이 우리의 모형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.

정상범위에 대한 가정을 통해서, 롤즈는 각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:



5. Rawls's Characterization of Individual Utility Functions



롤즈가 말하는 "정상적인 사람"의 효용함수가 지닌 일반적인 특성

- (C1) 각 개인들의 효용함수는 재화의 양에 **단조증가(strictly increasing)**한다.
- (C2) 각 개인들의 효용함수에는 "**기준점 (위의 그림에서 G)**"이 존재하며,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각 개인들의 효용함수의 기울기와 곡률은 급격하게 변화한다. (이 때, 기준점 G는 각 개인들이 자신들에게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의 가치를 충분히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의 양을 지칭한다.)
- (C3) 기준점 이하의 범위에서는 각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**선형적(linear)**이며, **기준점 이상에서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다.**
- (C4) 기준점 이상의 범위에서는 각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**오목(strictly concave)**하며, **기준점 이하에서의 기울기보다 평탄하다.**

6.1. 모형

- 각 개인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형식으로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한번 상상해보자. (즉, 우리의 모형사회는 롤즈가 제시한 정의의 제 1원칙을 충족하고 있다.)
- 사회적으로 분배가 가능한 재화의 양을 $\bar{W} \geq 0$ 이라고 가정을 해보자.
- 이 사회에는 신체적-정신적 능력이 모두 정상 범위 안에 드는 두 개의 대표 집단 **MAG (More Advantaged Group)** 과 **LAG (Less Advantaged Group)** 이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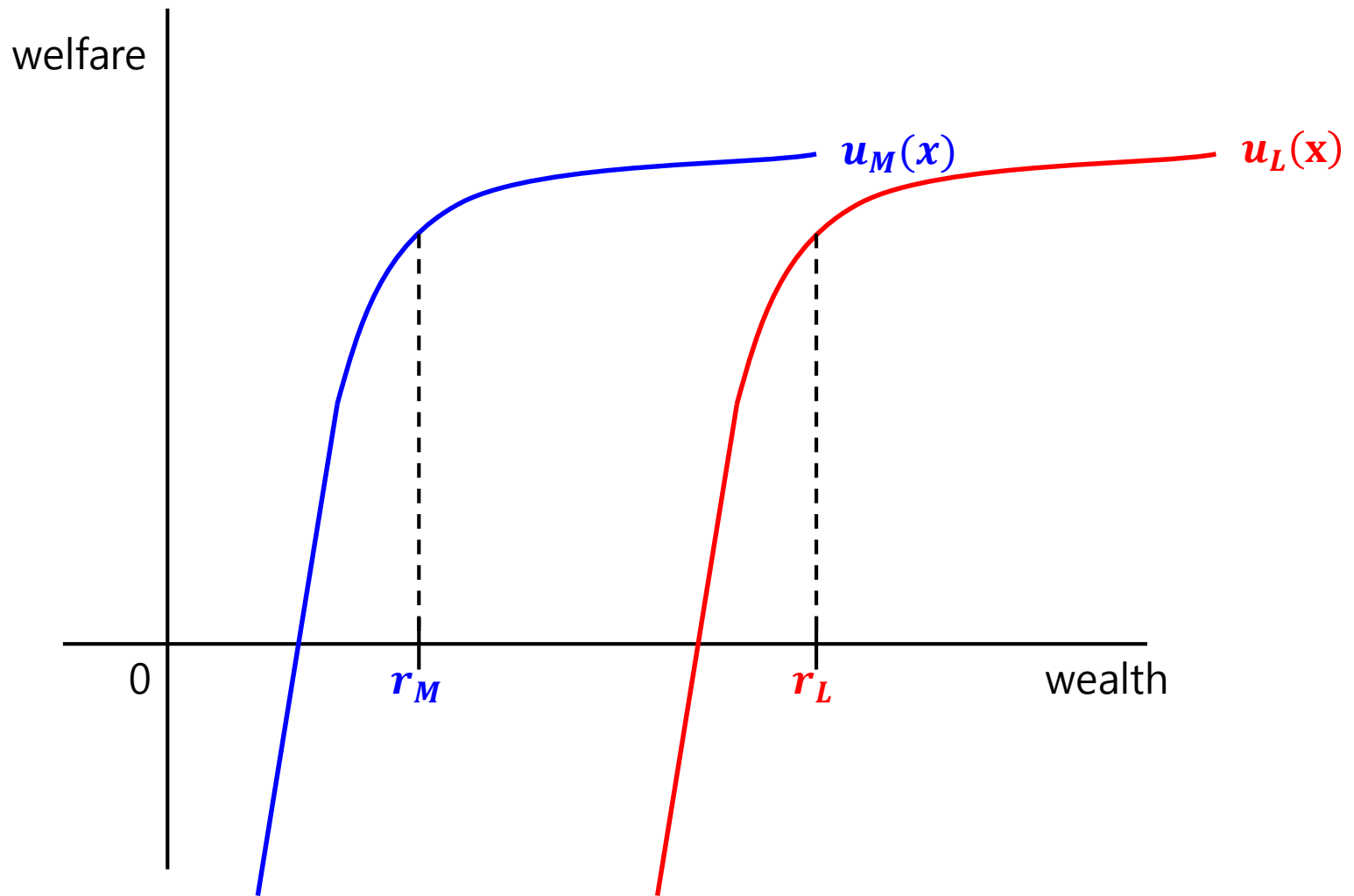
6.1. 모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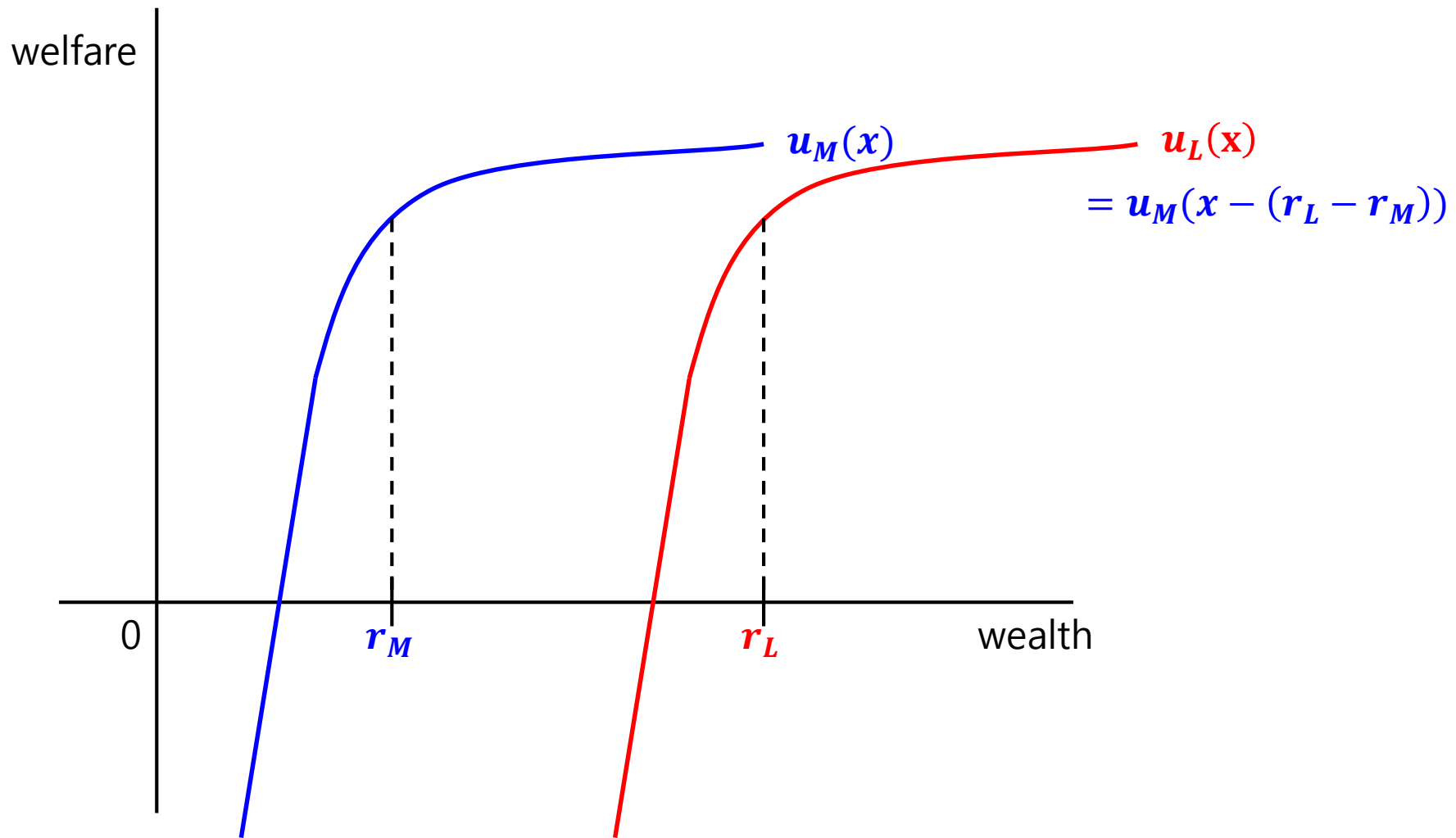
- MAG의 효용함수를 $u_M: \mathbb{R}_+ \rightarrow \mathbb{R}$ 라고 하고, LAG의 효용함수를 $u_L: \mathbb{R}_+ \rightarrow \mathbb{R}$ 라고 하자.
- 우리는 MAG과 LAG의 효용함수가 롤즈가 제시한 효용함수의 일반적인 특성들((C1)에서 (C4))을 따른다고 가정을 할 것이다.
- 단지, 우리는 MAG과 LAG의 효용함수들의 기준점이 다르다고 가정을 할 것이다.
- 구체적으로 말해서, MAG의 기준점을 $r_M \in \mathbb{R}$ 라고 하고, LAG의 기준점을 $r_L \in \mathbb{R}$ 라고 한다면, 우리는 $0 < r_M < r_L$ 라고 가정을 할 것이다.

welfare

0

wealth





6.2. 모형의 결과들

이후의 논의에서 (x_M, x_L) 은 MAG에게 x_M 만큼의 재화를 분배하고, LAG에게 x_L 만큼의 재화를 분배한 분배상태를 지칭한다.

명제 1: 모든 사회적 재화상태 $\bar{W} \geq 0$ 에 대하여, 롤즈의 차등원칙은 $(x_M, x_L) = (\frac{\bar{W}}{2}, \frac{\bar{W}}{2})$ 를 분배한다.

증명: 생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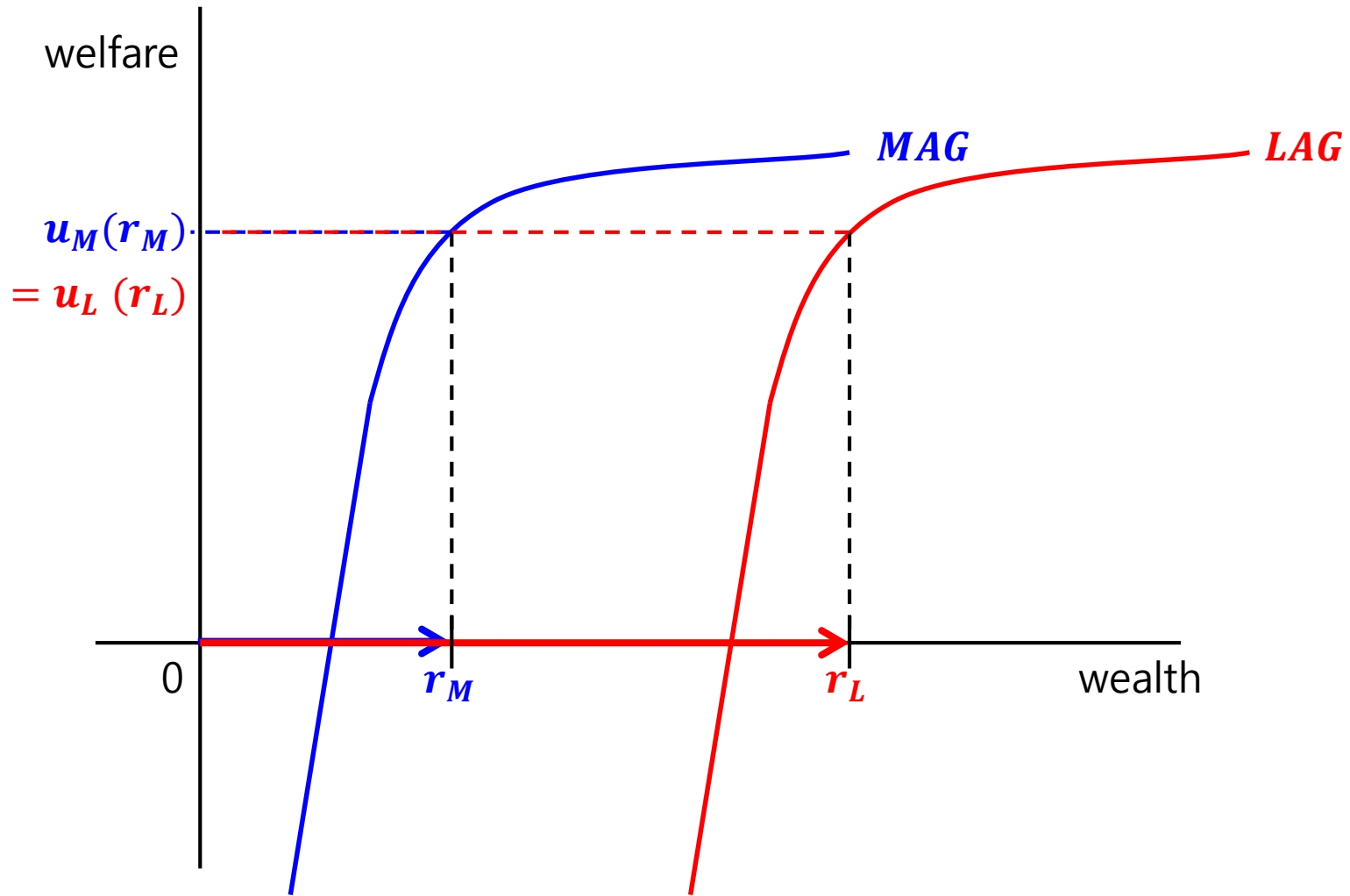
- 명제 1에 의하면, 롤즈의 차등원칙은 항상 사회적으로 분배가능한 재화의 양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각 그룹에 동등하게 분배를 할 것이다.
-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롤즈는 자신이 제시한 정의의 원칙들이 오직 사회적으로 분배가 가능한 재화의 양이 "적당하게 희소한(moderately scarce)" 상황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이다.
- 사회적으로 분배가 가능한 재화의 양이 각 개인들의 **기준점**을 겨우 충족할 만큼 있다면, 그러한 상황은 "적당하게 희소한" 사회적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.
- 따라서, 우리의 모형에서 사회적으로 분배가능한 재화의 양이 적당하게 희소한 상황은 $\bar{W} = r_M + r_L$ 로 표현될 수 있다.

6.2. 모형의 결과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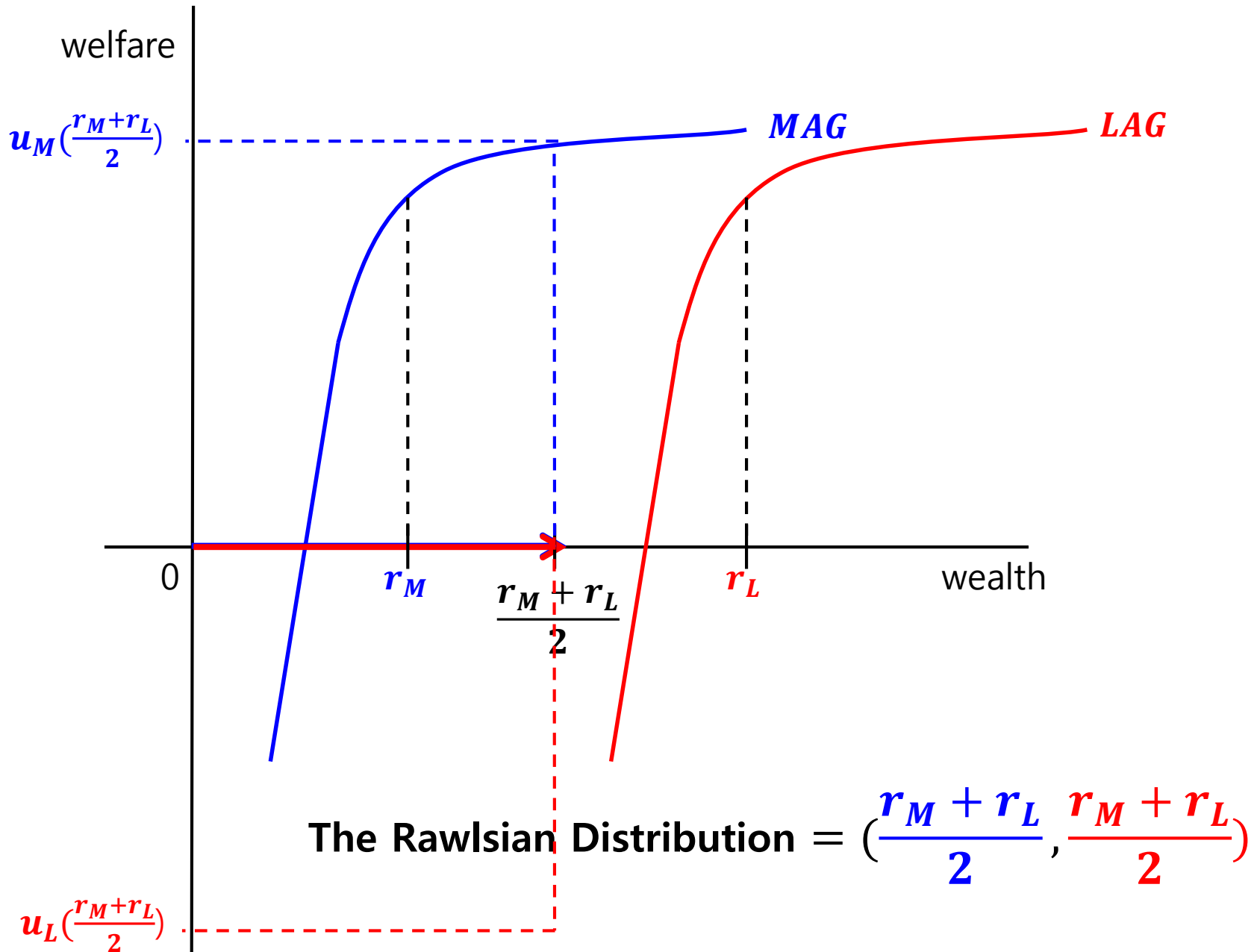
명제 2: $\bar{W} = r_M + r_L$ 라고 가정해 보자. 그러면

공리주의는 $(x_M, x_L) = (r_M, r_L)$ 라는 분배상태를 제시하고,

롤즈의 차등원칙은 $(x_M, x_L) = \left(\frac{r_M+r_L}{2}, \frac{r_M+r_L}{2}\right)$ 라는 분배상태를 제시한다.



The Utilitarian Distribution = (r_M, r_L)



6.2. 모형의 결과들

- 명제 2의 내용은 중요하다. 그것은 사회적 재화가 적당하게 희소한 상황에서 공리주의와 롤즈의 차등원칙이 어떠한 분배상태를 제시하는지 말해주고 있다. 사회적 재화가 적당하게 희소한 상황에서
 -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기준점을 충족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자유와 기본권의 충분한 가치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준다.
 - 이에 반해 롤즈의 차등원칙은 각 사회적 집단에 $\frac{r_M+r_L}{2}$ 만큼의 재화를 평등하게 분배를 하는데, $\frac{r_M+r_L}{2}$ 는 MAG의 기준점인 r_M 를 초과하지만, LAG의 기준점인 r_L 보다 부족한 재화의 양이다.
 - 이 얘기는 결국 롤즈의 차등원칙은 상대적 강자인 MAG가 가진 자유와 기본권의 가치만을 충족시키고, 상대적 약자인 LAG가 가진 자유와 기본권의 가치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분배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
 - 이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롤즈의 차등원칙의 근본적인 목적에 위배되는 분배결과이다!

6.2. 모형의 결과들

이처럼 롤즈의 차등원칙이 그것이 탄생하게 된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재화를 분배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 재화 상태가 적당하게 희소한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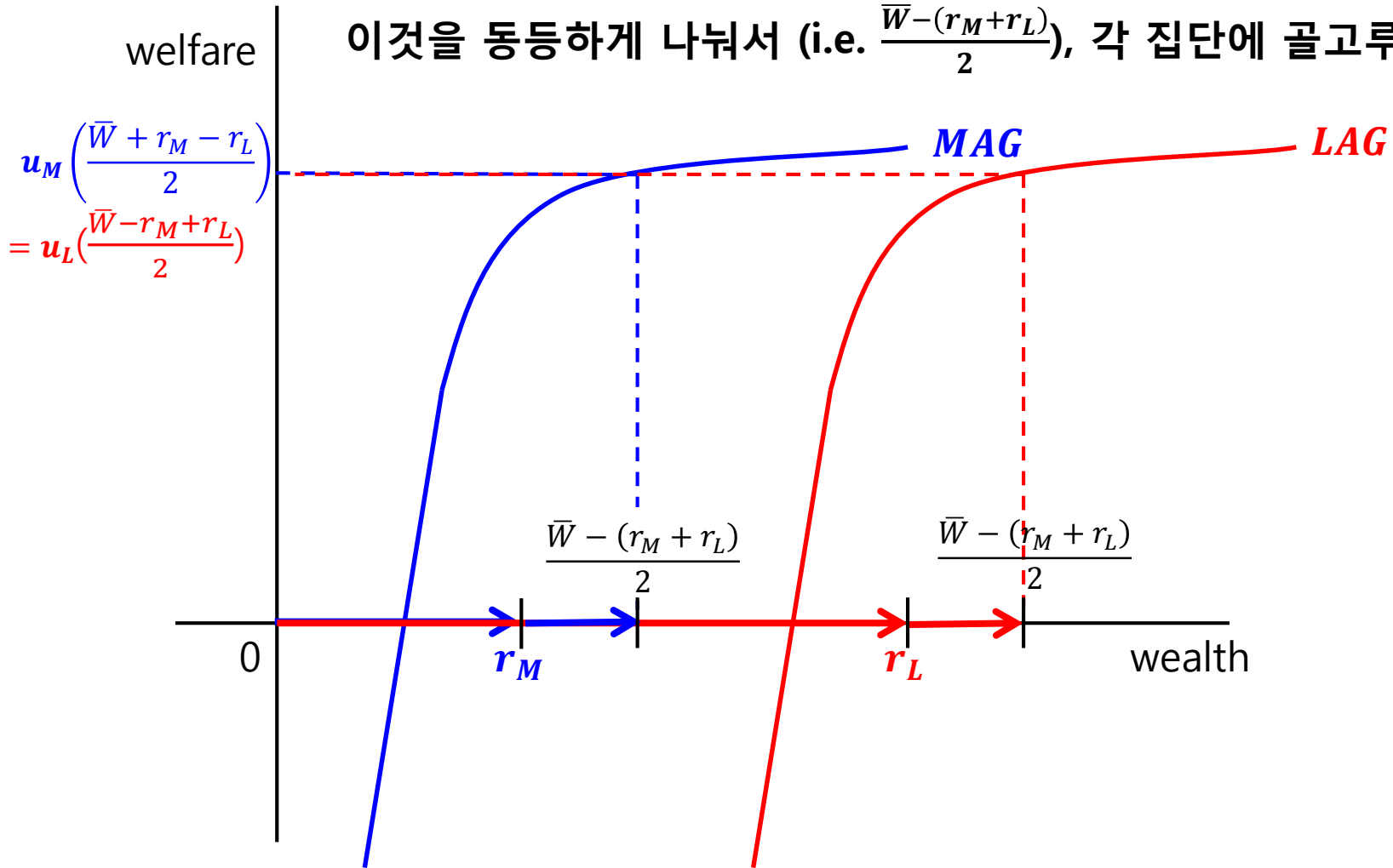
명제 3: 사회적 재화의 상황이 $r_M + r_L < \bar{W} < 2r_L$ 라고 가정해보자. 그러면

공리주의는 $(x_M, x_L) = \left(\frac{\bar{W} + r_M - r_L}{2}, \frac{\bar{W} - r_M + r_L}{2} \right)$ 라는 분배상태를 제시하고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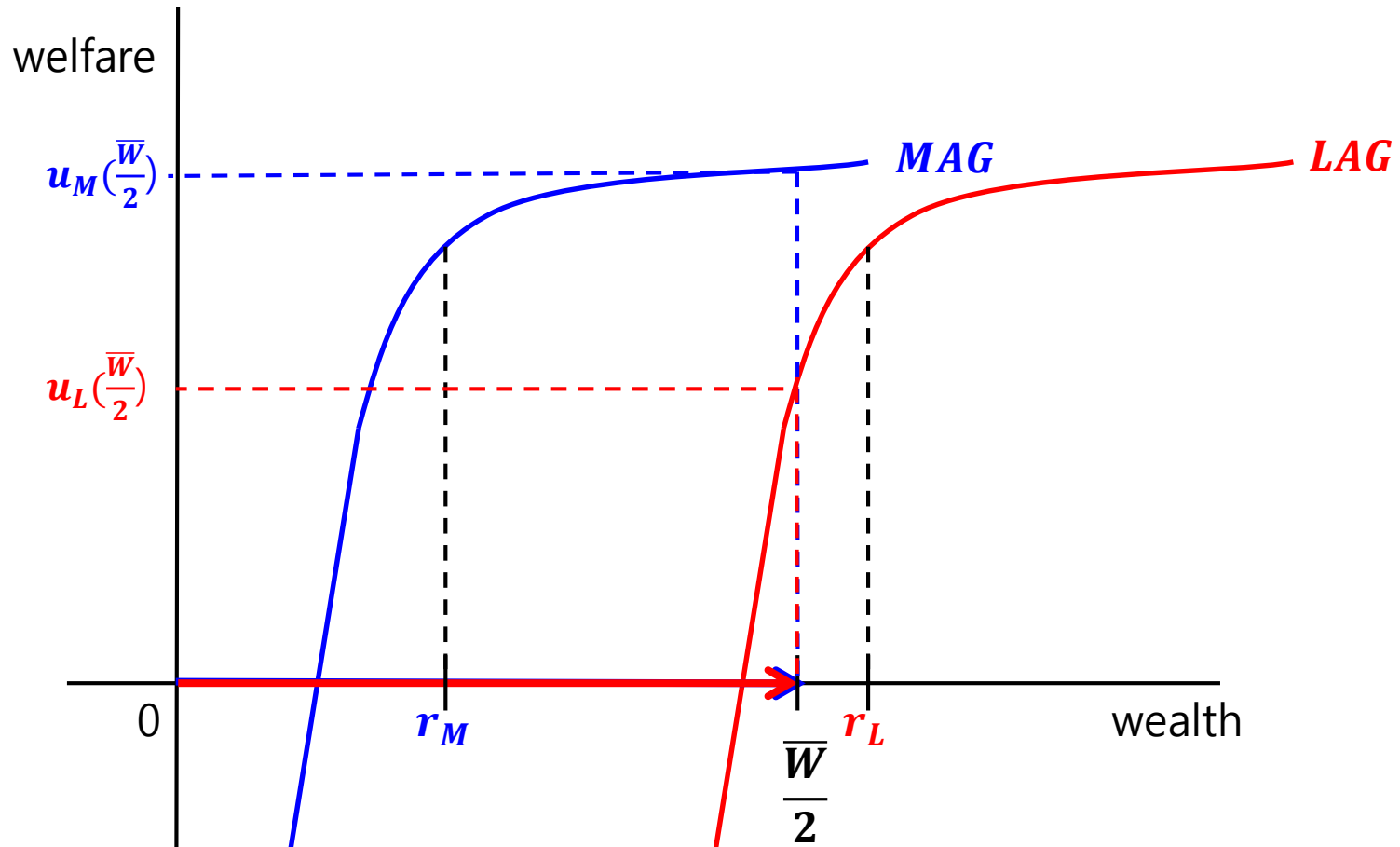
롤즈의 차등원칙은 $(x_M, x_L) = \left(\frac{\bar{W}}{2}, \frac{\bar{W}}{2} \right)$ 라는 분배상태를 제시한다.

남아 있는 사회적 재화의 양: $\bar{W} - (r_M + r_L)$.

이것을 동등하게 나눠서 (i.e. $\frac{\bar{W} - (r_M + r_L)}{2}$), 각 집단에 골고루 분배한다.



The Utilitarian Distribution = $\left(\frac{\bar{W} + r_M - r_L}{2}, \frac{\bar{W} - r_M + r_L}{2} \right)$



The Rawlsian Distribution = $(\frac{\bar{W}}{2}, \frac{\bar{W}}{2})$

6.2. 모형의 결과들

- 명제 3은 사회적 재화 상태가 "적당하게 풍부한(*moderate abundance*)" 상황을 가정한다.
- 이 때, 공리주의는 우선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기준점을 충족시키고, 그리고 나서 남아 있는 사회적 재화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한다.
- 공리주의가 사회적 최소수혜자들의 기준점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극심한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롤즈의 주장은 우리의 모형 안에서 명백하게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.
- 이와는 반대로, 롤즈의 차등원칙은 LAG가 아닌 오로지 MAG가 가진 자유와 기본권의 가치만을 충족시키면서 그것이 탄생하게 된 근본 취지에 위배되는 분배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6.2. 모형의 결과들

- 롤즈의 차등원칙이 모든 사람들의 기준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는 오직 $\bar{W} > 2r_L$ 일 때 뿐이다. 다시 말해서, 롤즈의 차등원칙은 사회적 재화상태가 매우 풍부한 상황에서만 모든 사람들의 기준점을 충족시킨다
- 이것만으로도 롤즈의 차등원칙은 이미 실패작이라는 것이 드러났다. 하지만, 롤즈의 차등원칙이 가진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.
- 사회적으로 분배가능한 재화가 매우 풍부하다고 가정을 해보자. 즉, $\bar{W} > 2r_L$
- 이 경우에는 공리주의와 롤즈의 차등원칙 둘다 모든 사람들의 기준점을 충족시킨다.

그렇다면, 적어도 사회적 재화가 매우 풍부한 상황에서는 공리주의와 롤즈의 차등원칙이 무승부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?

→ 그렇지 않다!

6.2. 모형의 결과들

명제 4: 사회적으로 분배가능한 재화가 $\bar{W} \geq r_M + r_L$ 라고 가정해보자. 이 경우, 다음 두 개의 명제가 참이다.

- (a) 공리주의가 달성하는 사회적 후생의 총합은 롤즈의 차등원칙이 달성하는 사회적 후생의 총합에 비해 항상 더 크다.
- (b) LAG가 경험하는 후생의 수준은 항상 롤즈의 차등원칙 체제하에서보다 공리주의 체제 하에서 보다 더 높을 것이다.

결국, 사회적 최소수혜집단인 LAG의 관점에서 볼 때, 공리주의는 롤즈의 차등원칙에 비해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우월하다:

- (1) 롤즈의 차등원칙과는 달리, 공리주의는 모든 사회적 재화 상황에서 LAG의 기준점을 충족시켜 줌으로써, LAG의 자유와 기본권의 공정한 가치를 보장해준다.
- (2) 공리주의는 LAG로 하여금 롤즈의 차등원칙 보다 항상 더 높은 후생수준을 보장해준다.

7. 원초적 입장에서부터 공리주의 도출하기

이제 다시, 롤즈의 원초적 입장으로 돌아가서, 합의 대표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 살펴보도록 하자.

롤즈에 의하면, 다음의 세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황에서는 이른바 **“최소극대화(maximin) 전략”** (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, 거기서 최선의 결과를 추구하는 전략)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.

- (a) 확률에 대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다.
 - (b) Maximin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보장받을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충분히 만족스럽다.
 - (c) 다른 전략을 추구했을 때,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다. (Rawls 2001: 98)
- 롤즈에 의하면, 원초적 입장을 위의 세 가지의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는 상황이다.
- 따라서, 원초적 입장의 합의 대표자들을 maximin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.

7. 원초적 입장에서부터 공리주의 도출하기

- Maximin 전략을 따른다는 것은, 합의 대표자들이 자신들이 (기준점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) LAG 집단의 일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
- 여기서, “보장받을 수 있는 재화의 양”은 LAG의 기준점을 지칭한다. 그러한 기준점은 LAG의 일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자유와 기본권의 가치를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만족스럽다. [(b) 조건 충족]
- 따라서, 원초적 입장의 합의 대표자들은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LAG의 일원들이 자신들의 기준점인 r_L 만큼의 사회적 재화를 확보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할 것이다.
- 앞서의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, 사회적으로 분배가능한 재화의 양이 “적당하게 희소”하거나 그 이상일 때, 공리주의는 LAG의 일원들에게 그들의 기준점인 r_L 이상의 재화를 보장한다.
- 이에 반해, 롤즈의 차등원칙은 오직 사회적으로 분배가능한 재화의 양이 극도로 풍족한 경우에만 LAG의 일원들에게 그들의 기준점인 r_L 이상의 재화를 보장한다.

7. 원초적 입장에서부터 공리주의 도출하기

- 사회적으로 분배가능한 재화의 양이 매우 풍족하지 않은 모든 상황에서, 롤즈의 차등원칙을 통해서 LAG의 일원들에게 분배되는 재화의 양은 항상 그들의 기준점인 r_L 를 충족시키지 못한다.
- 이 말은, 합의 대표자들이 롤즈의 차등원칙을 선택함으로써 겪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조건 ©가 말한 것처럼 견디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.
- 따라서, 롤즈가 스스로 제시한 모든 가정 하에서 공리주의는 롤즈의 차등원칙보다 **모든 분배상황에서 우월한** 분배를 가져온다
- 다시 말해서, 공리주의를 택하는 것은 원초적 입장의 합의 대표자들에게 있어서 지배적인 전략(dominant strategy)이며, 이런 이유로, 합의 대표자들은 롤즈의 차등원칙이 아닌 공리주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.
- 아울러, 공리주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, 합의 대표자들은 조건 (a)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떠한 종류의 확률 정보에도 자신들의 선택을 의존하고 있지 않다.

8. 맺으며

<정의론>의 14절에서 롤즈는 순수-절차적정의와 완전-절차적정의를 구분한다.

- **완전-절차적정의(Perfect Procedural Justice)**에서는 무엇이 정의로운 분배인지에 대한 독립된 기준이 있고, 정의로운 분배상태를 보장해주는 절차가 존재한다. (Rawls 1971/1999: 74)
 - 이에 반해, **순수-절차적정의(Pure Procedural Justice)**에서는 무엇이 정의로운 분배인지에 대한 어떤 독립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, 어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모두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된다. (Rawls 1971/1999: 75)
- 롤즈는 원초적 입장이 완전-절차적정의가 아닌 순수-절차적정의를 현시한다고 주장하였다. (Rawls 1971/1999: 118)
- 우리는 롤즈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충실하게 따를 경우, 원초적 입장에 처한 합의 대표자들이 차등원칙이 아닌 공리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
- 이것이 사실이라면, 롤즈는 공리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자기-패배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.

감사합니다.